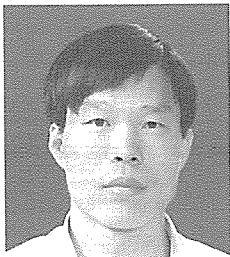




베르누이학회 亞太국제학술회의

● 일시 : 1999년 6월9일~11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확률 및 통계와 그 응용’을 내용으로 하는 베르누이학회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구 국제 학술회의가 지난 6월9일부터 3일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13개국 1백여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대표로 유일하게 참가한 필자는 첫날 초청강의에서 ‘마아팅게일 부등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베트남 수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 학술회의는 태국이나 홍콩에서 열기로 했다.



崔昌善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교수)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확률 및 통계, 그리고 그 응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이 회의는 베트남의 국립자연과학기술센터에서 6월 9일부터 3일동안 진행되었다. 사실은 이 학술회의는 베르누이학회(Bernoulli Society)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부의 국제학술회의이다. 베르누이학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부의 활동은 한동안 침체기를 갖다가 지난해 한국의 KAIST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총 1백14명이 참가한 국제학술회의로 모두 13개 나라에서 39명의 외국인이 모였다. 프랑스에서 11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프랑스와 베트남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중국에서 5명, 타이완에서 7명, 미국에서 3명, 캐나다와 일본에서 각각 2명이 참석하였다. 아쉬운 것은 작년에 전 회의를 치룬 한국에서 1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날 초청강연 큰 호응

주최측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으며 준비가 철저하여 회의의 진행이 순조로웠다. 비가 오는 데도 공항에 마중을 나왔으며 초청연사에 대한 대우는 최상급이었다. 도착하는 날 저녁에 환영회가 있었다. 호텔에 돌아와 발표준비를 마무리하고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금방 잠이 들지는 못했다. 불행히도 아침에는 한국의 시간으로 잠이 깨어

잠을 잘 자지 못한 것이 되었다.

첫날 개회식에서 몇사람의 짧은 연설이 있고 나서 확률론의 권위자인 MIT의 Stroock교수가 리만다양체에서의 확산과정에 대한 난해한 강의를 했다. 첫날은 초청강의만 있었는데 나의 강의는 오후에 잡혀있었다. 유선 마이크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예상했던대로 사람들이 나의 발표가 명확하여 알아 듣기 쉬웠고 준비해 간 OHP도 글씨가 커서 보기 좋았다고 했다.

나의 발표는 마아팅게일 부등식에 관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관련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의외로 베트남의 수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다. X.L. Nguyen교수는 복소영역에서의 마아팅게일 연구논문을 나에게 가져왔고 T. Nguyen Duy교수도 바나흐공간에서의 수렴에 관한 최근의 논문과 이력서를 건네 주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곳 센터의 수학연구소에는 80여명의 세계적 수준의 수학자가 있고 그 중 10여명이 순수확률론을 연구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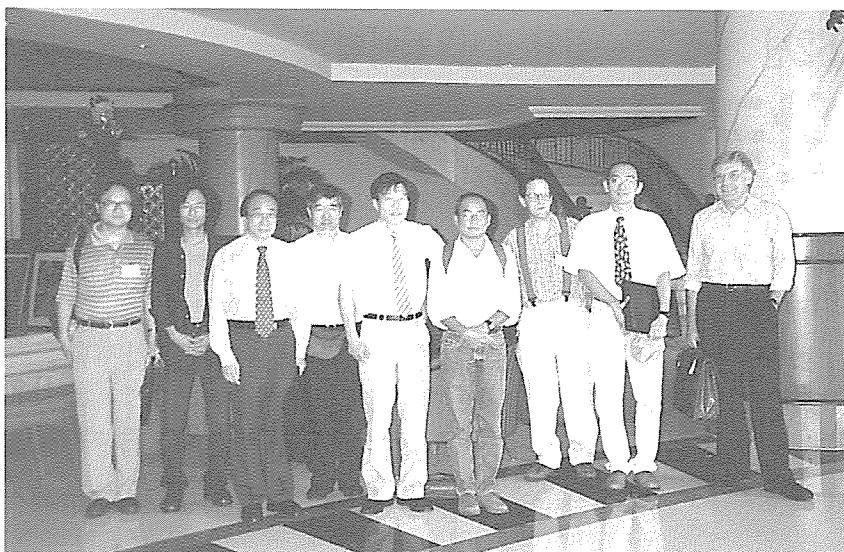
둘째날에는 아침을 먹기 전에 호텔을 나와 하노이 시가를 따라 산책을 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6시가 조금 지났는데 넓지 않은 길을 꽉 채워 자전거와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었다. 센터에 있는 연구원들도 7시 반부터 일을 한다고 했다. 하노이의 집들은 몇개의 호텔을 제외하고는 모두 3, 4층의 건물로 앞에서 보아 좁고 뒤로 긴 모양을 하고 있었다. 또 아열대의 푸른 가로수들이 길가에 가득하여 시 전체가 아늑한 분

위기였다. 안 좋은 것은 온도가 35도를 넘고 무척 습하여서 아침 공기도 전혀 상쾌하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 준비된 봉고차를 타고 센터에 갔다. 큰 강당에서는 통계분야 분과발표가 있고 확률론분야는 2층의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확률론 발표장에만 있어 통계분야 발표는 듣지 못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국립자연과학기술센터에서 통계연구소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통계분야 발표자가 많았고 심지어는 몇몇 통계발표는 확률론 발표장에서도 이루어졌다. 오전의 확률론 발표자는 많은 사람이 베트남 수학자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이론적이고 흥미있었다. 점심 때에는 베르누이학회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부 위원회 모임에 갔다. 현 베르누이학회장인 싱가포르의 Louis Chen교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Peter Hall 교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부장인 타이완의 C.R. Hwang교수, 2명의 일본학자, 2명의 중국학자, 그리고 이번 학회의 주최자인 베트남의 T.M. Tuan교수가 참석하였다.

다음 회의 태국이나 홍콩서

나는 한국의 위원인 최봉대교수님 대신 참석하는 것이었다. 위원의 선출과 임기에 대해 토의한 후 다음 학술회의는 태국이나 홍콩에서 2000년 후반이나 2001년 전반에 열기로 하였다. 둘째날 오후에는 하노이시 관광이 있고 저녁에는 연회가 있었는데 감기몸살 기운이 심해 저녁도 먹지



▲ Hanoi Horizon 호텔에서 다른 초청연사들과 함께한 필자(왼쪽에서 다섯번째)

않고 계속 잠만 잤다. 셋째날에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다. 오전에는 강당에서 초청연사들의 강연이 있었고 오후에는 두 분과로 나누어 발표가 있었다. 예정된대로 학회는 오후 4시에 일찍 끝났다.

학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외국학자들은 하롱만 관광을 떠났다. 하노이에서 170km 떨어진 곳인데 길이 넓지 않고 그나마 오토바이가 많아 네 시간이 걸렸다. 창밖에 펼쳐진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다. 이제 막 수확을 마친 논에는 잘린 벼 밑동에서 푸른 잎이 자라나고 있고 여기저기 작은 묘판에는 부드러운 벼싹이 뻗뻗이 돋아나고 있었다. 곧 다시 모내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경지정리가 잘 된 평평한 넓은 농장에서 의외로 재래식 방법으로 용두레질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라면 농기계를 이용해 적은 인력으로 경작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을 보고 있는 동안 안내하는 젊은 청년이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이따금 보이는

사당들이 북방의 외래 침략자들에 대해 용감히 싸운 무사와 열녀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롱만은 가까운 바다에 무수히 많은 작은 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섬 중 몇 곳에 배를 타고 가서 구경을 했다. 주로 본 것은 석회 동굴이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수학연구소의 D.Q. Luu교수와 이야기를 했다. Luu교수는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을 공부하고 연구한 나의 분야에서의 중진학자로 기회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Luu교수는 또 베트남의 수학이 세계적 수준이나 이론에만 치우쳐 있으며 학자와 연구원들의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베트남을 떠나는 날 홍콩으로 뜨는 비행기 안에서 동족상잔의 공통된 비운을 겪은 한국사람으로서 베트남이 하루 빨리 공업화에 성공하여 생활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아지는 초록색 평야를 내려다 보았다. ④7